

[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]

강산건설 연립주택 신축 현장 찢림 사고 件

안전기획팀
'22.04.25. 11:30

□ **시공사** : 강산건설(주) (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95위)

□ **현장개요**

- 현 장 명 : 송산 리안비채 연립주택 신축공사
- 공사금액 : 450억
- 공사규모 : 테라스 하우스 259세대

□ **재해내용**

'22.04.22(금) 08시 54분경 재해자가 202동 10호세대 내부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중 말비계 위에서 추락(높이 약 1.5m)하면서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관 고정용 철근에 옆구리가 관통되어 사망

□ **현장 사진**



□ **피해상황**

- ▷ 인적피해 : 1명 사망
- ▷ 물적피해 :

□ **사고원인 추정**

- ▷ 말비계 상부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 후 수직철근에 옆구리가 관통되어 사망
- ▷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

□ **당사 현장 조치사항**

- ▷ 재해사례 전파
- ▷ 말비계는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고 각종 부재의 간결상태 및 상부 미끄럼방지조치(미끄럼방지테이프, 단부인식대) 여부 사전 확인
- ▷ 찢림위험이 높은 수직철근의 단부는 철근방지캡 설치 하고 공정에 따라 수직철근 절단 제거 혹은 밴딩 후 전도방지 표식

■ 언론 보도자료(KBS 외)

KBS NEWS

경기 화성시 공사현장서 추락 사고...60대 철근공 사망

입력 2022-04-22 16:58:45 수정 2022-04-22 17:04:56

사회



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찢려 숨졌습니다.

고용노동부는 오늘(22일)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의 한 공동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 하던 노동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

고용부는 하청업체 소속인 이 노동자가 벽체 거푸집 조립을 위해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고, 인근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찢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사고가 난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.

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하고 있습니다.